

농 촌 잠 언

박 훈 서 (목사, 충북 충주 야촌교회)

▶ 물꼬 밑에 잠자야 농사를 제대로 짓는다

수리시설이 부족했던 20년전 만 해도 서로 논에 물을 대려고 싸움이 잦았고 논에 물을 가뒀놓기가 매우 어려웠다. 옛날에는 더했을 것이다. 물꼬 밑에 잠을 자면서 물을 관리해야할 정도로 힘들었을 것이다. 벼농사는 물관리가 중요함을 나타낸 말이다.

▶ 하지(夏至)가 지나면 밭을 물꼬에 담그고 산다

벼농사 기간 중 물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하지이다. 논에 물대는 일에 열중하다 보니 밭이 물에 적셔져 마를 새가 없을 정도이다. 벼농사 후기의 물관리의 중요성을 이룬 말이다.

▶ 잔디뿌리가 뻗기 전에 비가 와서 생수가 나와 풍년 든다

잔디의 뿌리가 뻗기 전에 비가 생수가 솟을 정도로 와야 못자리 설치도 하고 모내기도 할 수 있어 풍년을 기대할 수 있음을 뜻한 말이다.

▶ **백로(白露)까지 핀 고추 꽃은 효도한다**

백로는 9월 초순경을 말하는데 고추의 꽃이 그때 핀 것은 서리가 오기 전에 붉은 고추로 수확이 가능해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.

▶ **개구리밥 생긴 논이 농사 풍년 든다**

논에만 생기는 물에 둥둥 떠다니는 잡초인 개구리밥은 유기질이 풍부한 논에 많이 생긴다. 다수확을 이루기 위해서는 땅심을 돋구는 것이 중요함을 이룬 말이다.

▶ **참나무에 새순나면 장마진다**

참나무에 2차로 새순 나는 시기가 7-8월의 장마기간이다. 참나무에 새로운 순이 나는 것을 보면 장마가 올 것을 예측하고 장마를 대비할 수 있다.